

HP, 퍼스널 시스템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제품 발표회

소비자 컴퓨팅 경험을 강화하는 HP 타블렛 PC 선보여

컴퓨터 제조업체인 한국HP는 지난 1월 24일, 25일 양일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윈도우비스타 홈 프리미엄을 탑재한 노트북과 데스크톱 PC를 선보였다.

이 발표회에는 애드리언 코치 HP 아시아태평양 총괄 부사장이 24일 오후 직접 참석해 “PC가 성능만 좋아져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며 “HP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시킨 올인원 터치스크린PC를 앞세워 세계 PC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이라고 HP만의 디자인과 기술철학에 대한 기초연설을 펼쳤다.

다음날인 25일 행사에는 컨슈머 데스크톱, 노트북 및 핸드헬드 기기를 포함한 새로운 컨슈머 PC 제품군을 발표했다. HP 퍼스널 시스템 그룹 아시아 태평양 지역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올인원(all-in-one) 터치스크린 PC와 터치스크린 컨슈머 노트북 PC, 혁신적인 디자인의 HP 및 컴팩 컨슈머 데스크톱 PC 제품군, 새로운 아이팩 핸드헬드가 대거 출시, 소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HP 올인원(All in one) 터치스마트 PC’, ‘HP 파빌리온 v7000 시리즈 PC’, ‘HP 디지털 노트북 파빌리온 tx1000 PC’가 크게 주목받았다. 곧 국내에 출시될 제품들을 미리 만나봤다.



홈 블랙박스 올인원 터치스마트 PC

‘HP 올인원 터치스마트 PC’는 혁신적인 디자인 기술을 바탕으로 가족을 위한 컨슈머 데스크톱과 모니터를 마련한 것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비스타를 기반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업무 처리 성능을 극대화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족 구성원을 타깃으로 개발된 이 제품은 가족들의 스케줄, 정보, TV, 음악, 영화 및 사진에 가벼운 터치만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가족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간활용에 많은 효율적 이어서 집안 어디에도 잘 어울리게 디자인되었다. 이밖에도 견고한 금속 프레임 안에 착탈식 하드디스크와 무선키보드, 포토스마트 프린터를 마련해, 홈네트워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세련됨이 강화된 HP 파빌리온 V7000 시리즈

'HP 파빌리온 v7000시리즈 PC'는 슬림함과 세련됨을 강조한 PC이다.

기존의 PC들이 책상 밑으로 내려간 것에 비해서, 새로운 파빌리온 시리즈는 책상 위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여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을 뽐낸다. 또한 아름다움 속에 사용자의 편의기능을 대거 추가해 관심을 모았다. 퍼스널 비디오 레코더가 통합된 TV튜너를 갖추고 있어 생방송 프로그램의 시청, 녹화 및 일시 정지가 가능하고, 미디어 센터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이용하여 각각의 음악, 사진, 및 비디오 파일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도 HP만의 라이트스크라이브(LightScribe)기술이 적용 통합형 슈퍼/멀티 DVD버너로 HP 파빌리온 슬림 라인 v7000 시리즈 PC를 이용한 음악, 영화 및 사진 파일의 공유 및 저장을 간편하게 만들어준다.

시각과 촉각으로 움직이는 디지로그 노트북 파빌리온 tx1000PC

이날 특히 주목을 받았던 제품은 '파빌리온 tx1000 PC' 이었다. HP 파빌리온 tx1000 엔터테인먼트 노트북 PC는 180도 회전 가능한 12.1인치 와이드 '트위스트 앤 터치(twist and touch)' 스크린을 탑재하여 영화 감상과 언제 어디서나 간단한 프리젠테이션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제품은 180도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면 LCD로도 활용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수업 중에 노트 필기를 가능하게 하며, 비행기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의 영화 감상에도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통합형 웹캠과 전방향 듀얼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과 및 가족들과 화상채팅, 업무 관계자와의 화상회의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게 된다.

HP, 유비쿼터스 라이프스타일을 구현한다

새로운 HP 소비자 PC와 노트북 제품들은 소비자들이 가정이나 직장, 학교 내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컴퓨팅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세련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최신 기술을 접목시켰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라는 복잡한 도구가 아닌, 친숙한 공책이나 메모용지처럼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의 편리한 점을 누리게 되는 유비쿼터스 세계를 일상생활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번 HP의 변화도 이런 점에 특히 신경을 쓴 것 같다. 180도 회전하는 LCD모니터라든지, 모니터와 본체의 공간활용적인 설계 등은 특히 돋보이는데, PC의 변화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날 소개된 제품들의 국내 출시는 2007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김정상 기자 sang@print.or.kr